



인쇄하기  찜하기

☛ 홈 > 뉴스 > 경제 > 산업/기업

## 알뜰주유소, 기름 값 100원 인하 소비자 인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주유소시장의 안정화, 성숙단계

2016년 09월 21일 (수) 23:68:18

박종진 기자 ✉ [pjj2738@hanmail.net](mailto:pjj2738@hanmail.net)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알뜰주유소가 기름 값 100원 인하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알뜰주유소에서 소비자들은 일반주유소보다 약 30~40원 저렴한 판매가격에 싱가포르 가격과 정사 공급가격 차이 축소와 주유소의 마진 감소를 합한 약 73.8원(약 74원)의 기름 값으로 100원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를 느끼고 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뜰주유소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싱가포르 국제거래가격(이하 '싱가포르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유통단계별 가격 차이를 보면 싱가포르 가격과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차이는 73.8원((2012년)206,9원 → (2016년)133,1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싱가포르 가격과 정유사 공급하는 가격 56,0원((2012년)93,7원→ (2016년)37,7원)과 주유소의 마진이라고 볼 수 있는 전국주유소 판매가격과 정유사 공급가격과의 차이 17,8원((2012년) 113,2원 → (2016년)17,8원 )을 합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수년간 유가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알뜰주유소와 전국 주유소간 가격경쟁이 촉진돼 전국주유소의 판매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안다."며 "알뜰주유소 덕에 주변지역 주유소 간 가격 차이가 적어 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사업으로 한 때 고공행진이었던 주유소시장이 안정화, 성숙단계가 됐다."며 "향 후 유가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비용절감, 유외사업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농협중앙회, 도로공사가 경쟁촉진과 저가판매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원가절감형 자가 상표 주유소'다.